

OHEANA



www.pcce.wmu.edu Issu Date May. 2024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기독교교육의 장 / 최윤정

08_ TO HELP CHILDREN COME TO KNOW AND LOVE GOD AND GROW

세대간 통합예배 / 가진수

14_ MY UTMOST FOR HIS HIGHEST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16_ PRAYER FOR CHILDREN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문

18_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함께 만드는 '절기음식'
재미있는 전통 놀이 '딱지치기'

20_

PRE-WORSHIP ACTIVITIES

가정예배 시작 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22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3월, 4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세대차이 극복을 위한 시대정신의 전환 부모-자녀 사이의 가치

1. 문제의식과 전개 방향: 세대 차이보다 더 큰 시대정신의 차이

본 칼럼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말하자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정신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이 과제가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줄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파르게 축소될 뿐 아니라 인격의 원만한 형성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와해가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가공할 발전속도로 정신적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는 현실이라 대책을 세우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가족이라는 말도 구시대의 언어가 된 듯 가족이 해체되거나 소원해지는 오늘날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신앙적 유대를 통해 신앙을 포함하여 전인격적 성숙이라는 과제를 더욱 절실한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다루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겪을 수밖에 없는 세대 차이를 주목하는 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물론 세대 차이는 인류의 역사 이래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변화속도를 배경으로 하는 세대 차이는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니 단순히 전통의 경험에서 그대로 그 지혜와 방법을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세대 차이에 대한 종래의 구태의연한 논의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 보다는 모든 사람이 겪어 왔었을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에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오늘날의 세대 차이가 지니는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작금의 많은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대 차이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대정신의 차이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는 적어도 문명사적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통시적(diachronic)으로 분석함으로써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시대를 공시적(synchronic)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는 다른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는 세대 차이는 과거 어느 때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정신의 차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오히려 여기서부터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과 처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동시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한다고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를 기점으로

이관 공유를 통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삼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로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보다 앞선 시대가 있었지만 인류사를 모두 망라할 수도 없거니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인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직도 밝힐 수 없는 인류학적-고고학적 연구의 한계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향을 준 의미 있는 시대는 문명사의 기원에서부터 잡는 것으로 충분할 터이니 이름하여 소위 인간의 자의식이 출현한 ‘축의 시대’를 시점으로 하는 고대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터이다.

2. 문명사를 이루는 시대정신의 전환과정

그렇다면 축의 시대가 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는가? 물론 문명사적으로는 축의 시대라는 것이

인간이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는 유한성에 대한 깊은 자의식이 출현하고 여기서 종교가 등장하면서 예술과 신화의 단계를 거쳐 결국 학문에 이르는 문명사의 시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좌충우돌하는 여러 힘들의 각축장이었던 자연(nature)이 이제 하나의 원리로 꿰어지는 문화(culture)로 읽히게 되었으니 이는 곧 ‘여럿으로부터 하나로로의 전환’이 그 핵심이었다. 이렇게 태동한 문명사는 근원 또는 원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찾아 나서는, 아니 하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탐구를 시작했으니 이 하나의 원리로 삼라만상을 다루고 통제하면서 예측하려는 가혹한 시도였다. 종교가 그러했고 학문이 그러했으니 탁월한 증거를 역사에서 넉넉하게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시작한 문명사는 오늘날 그리스도교 역사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그 태동배경이 되는 고대로부터 출발한다. 축의 시대의 결정적 분기인 BC5세기부터 서로마제국이 멸망하는 AD5세기까지 천 년동안 이어진 고대는 이른바 문명의 시원인 종교를 철학이라는 학문과 이으면서 보편화하는 과정이었다. 당연히 철학의 지배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시대의 철학은 만물의 뿌리를 탐구하는 ‘무엇’ 물음을 기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종교가 지배하는 중세까지 계속 이어졌으니 동로마제국이 멸망했던 AD 15세기까지의 또 다른 천년도 역시 근원을 찾아가는 ‘무엇’ 물음이 주축을 이루었었다. 물론 이때 종교란 그리스도교를 일컫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Christian Education Column

그러다가 철학과 종교의 상상력을 뒤로 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정체를 탐구하는 새로운 정신활동이 나타났으니 과학이 바로 그것이었다. 앞선 시대의 추상적 상상력이 ‘무엇’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려는 노력이었다면 이제 과학이 수행하는 관찰과 실험은 ‘무엇’ 물음에 대한 무수한 대답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말하자면 정체를 묻는 ‘무엇’에서 방법을 묻는 ‘어떻게’로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무엇이 아무리 어떻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앞서 ‘무엇’이 근원의 ‘있음’에 주목한다면 ‘어떻게’는 ‘앎’에 초점을 둔다. 당연히게도 앎은 앎이라는 행위를 하는 존재를 설정할 수밖에 없으니 인간은 비로소 앎의 주체로 등극한다. 여기서 앎의 주체를 가리키는 또 다른 물음인 ‘누가’가 엄연히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등장하니 고대와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무엇’은 객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근대는 고중세와는 달리 이미 있던 ‘무엇’과 새로 등장한 ‘누가’, 그리고 그 관계를 향하는 ‘어떻게’라는 세 개의 물음으로 얹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고대와 중세 이 천년을 지배했던 물음이 하나였다면, 근대는 그렇게 세 개의 물음이 얹혀 세계관과 인간관의 기본구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과학은 고대와 중세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인 근대를 열게 되었다. 중세를 지배하던 종교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종교화의 움직임이 세속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제 인류는 종교 대신에 과학을 통해 행복을 구가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세 개의 물음을 잘 엮으면 진리를 드러내 밝힐 수 있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주체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니 말이다. 급기야 ‘무엇’이 향하는 있음과 ‘어떻게’가 드러내는 앎을 묶어서 ‘있음과 앎의 같음’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 여겼다. 있는 대로 알고 아는 대로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이라는 근대 후기의 진리 공식은 이런 과정의 산물이었다. 말하자면 고중세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물음이 세 가지로 나오면서 얹혀야 했지만 목표는 역시 그런 갈래를 묶어내는 같음이었었고 결국은 하나였다. 그래야만 복잡다단하고 상호충돌하는 현실을 분석하고 조종 통제하며 예측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같음을 넘어서 하나를 향하려는 인류의 집요한 경향은 시작인 고대로부터 근대 말기까지 에누리 없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의 이념을 향해 인류는 바로 우리 시대인 현대 직전까지 질주해 왔었

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가 어떤 시대인가? 물리학과 천문학을 필두로 한 과학의 발달은 생물학과 의학으로 이어지면서 페니실린의 발명 덕분에 영아사망율을 크게 줄이고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여 감으로써 지구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의 기하급수적 급팽창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류의 점증하는 밀도를 경험하게 된 인간은 이제 서로 다른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16-7세기에 새삼스레 등장한 자연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18세기의 사회, 19세기의 역사를 거쳐 20세기에는 문화라는 범주까지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근대 후기부터 사람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같음이나 심지어 하나를 향해왔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웅립되어 왔던 같음이나 하나라는 것이 사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지배자나 가진 자들의 통치이념이었으니 이제 폭발하는 인구는 이를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 시대인 현대를 특징짓는 결정적인 아우성이 터져 나왔으니 전통에 반동하면서 터져 나온 ‘왜’라는 근거 물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덮여 있었던 나머지 물음인 ‘언제’와 ‘어디서’가 앞서 등장했던 ‘누가’와 새롭게 얹히게 되었다. 저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른바 홀로 ‘군림하던 주체’에서 ‘내 던져진 실존’으로의 전환이라 할 우리 시대의 반동은 그러기에 있음과 앎을 넘어 삶을 전면에 드러내게 하였다.



삶은 당연하지만 또한 새삼스러웠다. 그동안 덮여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로 묶어내는 갈음이 기준일 수 없으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럿의 공존과 혼재라는 현실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문명사의 시작이 ‘여럿에서 하나로 전환’이었는데 오늘날 이와는 정반대로 다시 ‘하나에서 여럿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가 소외와 허무, 불안과 절망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이를 입증한다. 결국 우리 시대인 현대는 있음을 묻던 고중세의 ‘무엇’ 뿐 아니라 앞에 초점을 두는 ‘어떻게’와 이를 담당할 ‘누가’로 얽힌 근대의 유산을 모두 받고서도 삶을 가리킬 ‘언제’와 ‘어디서’가 전면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니 한 개인에게서도 수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다름들의 아우성으로 소용돌이치는 세상이 되었다. 전통을 지배하던 거대담론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오늘날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미시담론들이 난무하게 된 것에 바로 이런 이유도 한 몫 하고 있다고 하겠다.

간략히 추리자면, 고중세 시대에 ‘무엇’이라는 물음 하나로 세상을 꿰어내려 했다면 과학이 이끈 근대는 ‘어떻게’라는 물음이 ‘누가’를 끌고 나오면서 물음이 셋으로 갈라졌지만 역시 얽혀 하나를 향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인 현대로 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비 물음으로 ‘왜’가 등장하고 이 ‘왜’를 묻게 한 ‘언제’와 ‘어디서’가 ‘누가’를 만들어간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현대인들은 여섯 개의 물음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복잡다단하고 좌충우돌하는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자기이해가 이와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니 이것이 시대정신의 전환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다.

3. 시대정신의 전환에 따른 가치관과 신앙관의 변천

그렇다면 가치관이나 신앙관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을까? 이들이 시대정신의 전환에 따라 변천과정을 겪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신앙관의 변천과정만 살펴보아도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태동보다 무려 오백 년 앞서 시작한 고대와 이를 물려받은 중세에는 앞서 말했듯이 ‘무엇’을 묻고 ‘있음’으로 대답했던 시대였다. 참된 ‘무엇’은 ‘있음 중의 있음’이었으니 없었던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을 있음이었다. 이러한 ‘있음 자체’가 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으니 이 시대의 믿음은 그러한 신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 즉 있음의 정도를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연하게도 신에 대한 ‘교리’(dogma)가 신앙의 중심적인 기조였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해야 하는 교리 말이다.

그런데 과학이 열어준 세속화의 근대는 ‘어떻게’를 묻고 ‘앎’으로 대답하던 시대였으니 믿음도 역시 앎의 차원에서 새겨졌다. 앎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믿음을 지닌다고 할 때 이는 구체적으로 ‘고백’(confession)의 형태로 엮여졌으니 이제 그리스도교의 초점이 신에서 신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고중세 신학이 신론을 발전시켰던 것에 비해 근대신학이 정통주의, 경건주의, 자유주의 등 신앙의 다양한 사조를 중심으로 개진되었다는 것은 좋은 증거이다. 그런데 이런 사조들은 앎의 주체인 인간의 정신을 이루는 세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에 근거한 것이었으니 믿음을 그렇게 정신 요소들 중 하나로 축소시키는 환원주의적 경향에 지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인 현대는 바로 이에 대한 반동이 있었으니 인간은 단순히 앎의 주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실존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말하자면 깔끔하게 추려지는 앎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이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되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믿음은 고중세처럼 누구에게나 같고 하나인 교리만도 아니고 인간이 주체로서 신을 향해 고백을 내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 소용돌이의 삶에



Christian Education Column

맞닿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삶이란 앞서 신을 묘사하기 위해 웅립되었던 있음이나 인간을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앎과는 달리 그렇게 확연하게 주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현대가 소외, 허무, 불안, 절망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다. 이제 우리 시대는 이를 과제로 삼고 출발했으니 그만큼 복잡다단한 소용돌이이지만 그러기에 또 그만큼의 성숙을 요구하고 또한 가능케 하는 계기들을 지닐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현대가 요구하는 믿음은 교리나 고백을 넘어서 ‘체험’(experience)의 차원까지 다다른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 체험은 무슨 특수하고 신비한 종교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현실에 맞는 의미를 지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근대가 구가하던 고백이 주체로서의 인간이 앎을 늘여가는 방식이었다면 체험은 모르고도 겪어가는 삶과 믿음을 잇는 터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제 믿음은 더 이상 있음의 정도를 늘이는 고전적인 유형도 아니고 앎의 갈래들 안에서 명확성을 구실로 스스로를 축소하는 근대적인 유형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으니 삶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는 믿음과 삶을 새삼스럽게(!) 이어내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나에서 여럿으로, 같음에서 다름으로의 전환이란 바로 이를 일컫는 것이었으니 이미 현대의 시대정신은 여섯 개의 물음을 유기적으로 엮으면서 살아오는 삶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선 시대와 그렇게도 구별되는 변화였으니 이전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혁명적인 전환이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신앙교육을 한다는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교회 강단에서 또는 성경공부시간에 읊어지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대체로 고전적인 ‘무엇’ 물음 하나에 집중하거나 기껏해야 근대적으로 ‘어떻게’를 물을 뿐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현대를 사는 자녀인 젊은이들은 ‘왜’로 시작하여 이미 여섯 개 물음을 소용돌이처럼 겪어가고 있다. 그들이 더 똑똑하고 현명해서가 아니라 모순과 부조리가 판을 치면서 불확실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인 젊은이들은 이를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한 개의 물음에만 초점을 맞추니 그 물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구실로 다짜고짜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경귀절만 되풀이하는 설교는 ‘무엇’만 붙들고 늘어지니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씨름하고 있는 정신문화사적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결과 오늘날 교회가 점차로 가라앉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현대 교회는 그동안 율타리로 작용했던 ‘무엇’이라는 하나의 물음에서 뛰쳐나와 현대인들이 씨름하는 ‘왜’ 물음을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믿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만 늘어놓았었다면, 이제는 이 시대가 묻고 있는 ‘왜 믿어야 하는가?’ 또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잠시라도 머물러 그 뜻을 새기고 나누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는 일방적인 선포의 언어라면 ‘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고민을 나누는 대화의 언어이니 말이다. 그리고는 이를 포함하여 여섯 개 물음의 소용돌이라는 현실의 눈으로 복음을 재해석하면서 이를 서로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시대정신의 현대적 전환에 의해 더 커진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런 거창해 보이는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무슨 연관을 지니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날의 부모와 자녀들은 어느 때나 있었던 세대 차이를 넘어서 시대정신의 혁명적인 전환이라





는 우리 시대에 연관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부모들은 대체로 고중세나 근대적인 유형에 머물러 있는 반면, 자녀들은 이미 다름의 소용돌이를 향하는 여섯 개의 물음이 범람하는 현대를 현실로 살고 있으니 말이다. 부모들은 같음을 향하는 동일성의 이념으로 세계관과 인생관이 형성되어 있으니 신앙관에서도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에 비해 자녀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은 이미 그런 소용돌이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이미 다름과 여럿을 체득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서는 인간관이나 신앙관이 부모의 그것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서 시대정신의 현대적 전환이라는 분기점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더 큰 간격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시대정신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도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태어났으니 삶에 대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아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은 부모로서는 뼈아픈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부모들이 중시하는 같음이나 하나는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미 겪으면서 씨름하고 있는 다름이나 여럿에 대해서는 대체로 억압이나 강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같음과 다름 사이, 하나와 여럿 사이는 대등한 대립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 관계로 엮여져 왔으니 역사가 이를 넉넉하게 입증하고도 남는다. 다름과 여럿이라는 현대 시대정신의 핵심 요소들이 전통의 같음과 하나에 대한 반동이고 저항이라는 것도 바로 이를 일컫는다. 그러기에 먼저 이 시대를 전 근대적이면서 근대적으로 살고 있는 부모가 자신이 처한 사상적-정신적 열개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밀도 있고 정직하게 직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 자녀들도 역시 책임적인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그 한계 못지않게 새겨주는 지혜를 도모해야 한다. 현대의 반동이나 저항이라는 것이 전통과의 관계에서일진대 그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방종이나 방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말한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상호적인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 다름과 여럿이 바로 대화를 필요로 하고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를 명분으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니 앞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대화에서도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말함에 앞서 우선 들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성령의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역사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깊은 '인격적 본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훨씬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까지 보호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이 내용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인해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만큼이나 깊고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가 온전히 빛에 거할 때 죄에 대한 온전한 의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 없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러한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린 시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행26:18)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는 '죄악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 변화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변해 결심을 한 상태는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서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

함'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신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Prayer for Children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가정

하 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성공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좇게 하소서. 세상적인 지혜와 삶의 방식대로 살기 보단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계시된 성경 말씀이 언제나 우리 가족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녀 000는 잠시 저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부모로서 그의 인생을 제 뜻대로 주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운 감정을 자녀에게 쏟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가 제 뜻대로 따라오지 않고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혹은 실패를 한다 하여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000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하소서. 학교를 선택할 때나 입시를 준비할 때, 직업을 구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편(아내)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케 하소서. 그래서 서로를 속박하거나 주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받을 사랑만을 계수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채우고 도울 일을 먼저 찾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선택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
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6-9)

Korean Traditional Culture

돌을 맞추며 노는 놀이 '비석치기'

[유래]

비석치기는 일정한 거리에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을 세워놓고 다른 돌을 던져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지역에 따라서 비사치기, 목자치기, 망까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흔히 비석치기라 한다. 놀이에 쓰이는 돌을 목자, 비석, 망이라 부르는 데서 비롯된 이름들이다. 이 놀이는 탐관오리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돌이나 발로 차다 보니 생겨나 놀이라고도 하며, 놀이에 쓰이는 목자나 망이 날아다닌다 해서 비석(飛石)놀이라 한다는 것이다.

[놀이방법]

공터에 모여 편을 나누고 공격과 수비 순서를 정한 후 수비팀은 적당한 곳에 선을 긋고 자신이 비석[목자, 망]을 세운다. 공격팀은 일정한 거리 밖에서 비석을 던져 세워져 있는 상대방의 비석을 맞춰 쓰러뜨린다. 비석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가고, 비석을 쓰러뜨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해진 마지막 단계까지 먼저 마친 편이 승리한다.

비사치기는 각 단계마다 손끝-발끝-무릎-가슴-어깨-머리로 비석을 옮겨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 원리가 담겨 있다. 또한 상대의 비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심신을 단련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5:28)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나머지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진 유일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전을 사랑하여 남유다로 내려가 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묘안을 생각해 내지요. 그는 벤엘과 단에 제단을 쌓고 각각 한 개씩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신이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역사서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등장합니다. 마치 탐관오리의 공적비에 돌을 던지던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인정하실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영상 보기 : 비석치기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전통의 맛 :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요리 10 '김치'

야채를 소금에 절이는 염장 음식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옛 김치의 원형은 무가 기본이었으며 고려시대 때는 물김치, 나박김치, 동치미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다. 현대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붉은 배추김치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래한 고추가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동아시아로 전해진 이후부터이다. 임진왜란 후 10여 년 정도는 고추를 독초로 생각하여 식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관상용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잡초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600년대 초에 고추가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점차로 김치 조리에 이용되었다. 다만 오늘날과 같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 만든 빨간 김치가 아닌 말린 고추 몇 개를 넣어서 맛이 나 향을 더하는 정도였다.

지금의 김치와 같이 빨간 고춧가루를 쓰게 된 것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1670년 조선 현종 11년에 경신대기근이 닥쳤을 때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려 소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뽕감의 가격이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소금값도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값을 아끼고자 다양한 대용품を 찾아냈는데, 그중 하나가 고춧가루였다. 꼭 대기근이라는 배경이 아니더라도 당시 먹고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 소금 외에도 다른 재료들을 배합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라남도의 젓갈류이다. 이것은 김치의 발전사에서 꽤 획기적인 방법으로, 소금만으로 김치를 담그면 쓴맛이 났던 것에 비해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아미노산 덕분에 훨씬 진한 감칠맛을 갖게 되었다.

김치 담그기는 한민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음식 전통 중 하나이다. 요리 문화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즉석요리, 이국적인 요리들이 소개되었지만 한민족은 오늘날까지도 가정에서 야채와 배추를 기르고 뽑아서 버무려 김치 담그는 일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겨울 한 철 동안 먹을 많은 양의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김장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김치 담그기의 노하우와 재료 등에 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족과 마을, 공동체 사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돈독하게 하고 있다.

김치는 맛이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

라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김치 담그기 전통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도 그 본래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01.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기도 |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저희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12:25~3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나뉘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다가 유다 왕에게로 넘어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벧엘과 단에 두고 경배하게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어요.

나눔 | 1.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에게 섬기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6~27절)

2.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상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기도 |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15:11~1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유다 왕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백성이 행하지 않도록 우상도 모두 없애 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기 할머니도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산당까지 없애진 않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힘썼어요.

나눔 | 1. 유다 왕 아사가 없애 버린 것들은 무엇인가요?(12~13절) 그런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11, 14절)

2.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기에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길 원해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순종이 선물한 놀라운 기적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길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17:7~16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북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 심한 가뭄에 시달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 떡(빵)과 물을 달라고 말했어요.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눔 | 1.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13~16절). 만약 내가 그 여인이었다면 엘리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각자 경험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가 매일 먹고 자고 일하며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때를 따라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응답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능력과 지혜의 말씀 안에서 서로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18:36~4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예언자)들과 맞서 바알과 하나님 중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그분이 살아 계신 참신임을 모두에게 알리셨어요.

나눔 | 1.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가족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읽어 보세요(36~37절). 엘리야의 기도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38절)

2.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간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살아 계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널리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Storytelling

가족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5. '산 소망'을 지닌 믿음의 사람

기도 |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였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베드로전서 1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특별한 은혜를 찬양해요. 공허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낡지 않는 하늘 유업을 선물해 주셨어요.

- 나눔** | 1. 공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3~4절)
2.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를 말해 보세요. 본문에서 깨달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공허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 유업과 상을 생각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6. 선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기도 |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 주세요.

말씀 | 베드로전서 2:13~17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모든 제도를 따르고 통치자와 지도자를 존중해야 해요. 그들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예요. 사회 질서가 잘 세워지면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나눔 | 1. 베드로는 국가의 제도, 왕과 왕이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3~15절)

2. 우리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각자 하나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기도 |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저희 가족이 하나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베드로전서 5:8~9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마귀의 시험과 고난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흔들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나눔 | 1. 베드로는 왜 근신하고(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을까요?(8~9절)
2. 일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것과 멈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더는 속지 않기를 원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덧입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기도 |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1:2~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북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자신의 병에 대해 묻게 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 그의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나눔 | 1.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아하시야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아하시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2~4절)

2.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내가 주로 취하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눔 | _____

기도 |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9.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요

기도 |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해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5:9~1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아람의 군대 장관(군사령관) 나아만이 나병(악성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북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하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어요. 결국 종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깨끗이 나았어요.

나눔 | 1. 엘리사가 보낸 심부름꾼의 말에 화를 냈던 나아만은 결국 어떻게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나요?(10~14절)

2.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선뜻 순종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일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저희 생각보다 항상 높고 크심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